

식품소재 · 반가공산업 육성 탄력

전북도, 정읍 칠보농동제약 · 남원 꿈엔들잇힐리아 · 고창 웰런비엔에프 3개소 공모 선정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공모에 도내 3개 업체가 선정됐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공모에 정읍 칠보농협 공동제약과 남원 꿈엔들잇힐리아, 고창 웰런비엔에프 등 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은 완제품에 사용되는 제분, 유지, 식품첨가물 등의 식품소재와 착즙, 건조, 분말 등 반(半) 가공품을 생산해 식품·외식기업에 공급(B2B)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번에 선정된 '정읍 칠보농협 공동제약'은 정읍 칠보농협에서 지난 1990년도에 설립한 자회사로,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숙지황을 생산해 한방 의료기관과 한국인삼공사 등에 공급하는 건강식품 기업이다.

공동제약은 정읍지황을 사용하며, 까다로운 GMP 기준에 맞게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숙지황을 생산, 지역 지황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우수한 건강기능 식품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공동제약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13억 원(보조금 7억8천만 원, 자부담 5억2천만 원)의 가공 기계·설비 구축과 가공공장 시설 개보수(661㎡)를 통한 생산시설 현대화로, 지황 생산능(54

호, 27ha)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원 꿈엔들잇힐리아는 지난 2010년 7월에 설립해 연간 2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이며, HACCP 인증과 유기농식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식품기업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친환경 원료소재로 주 소비처가 서울 경기 지역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산(160개 매장), 초록마을(120개 매장), 풀무원(100개 매장), 롯데백화점 등 친환경 유기농 전문 매장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반가공 원료로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분유원료로 올리고당을 반가공 납품하고 있고, 삼진푸드, 예산농산, 날인코퍼레이션 등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꿈엔들잇힐리아는 4억2천만 원(보조금 2억5천만 원, 자부담 1억7천만 원)을 투자해 올리고당별균시설, 보리차 로스팅기계, 식혜레토르트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고창 웰런비엔에프'는 지난 2018년 고창으로 이전, R&D를 기반으로 연매출 37억 원의 농축액 전문 식품 제조

기업체로 고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농축액으로 (주)일화, LG생활건강 등 국내 유명식품기업에 반가공 원료로 납품하고 있다.

고창에서 생산되는 배, 도라지, 더덕, 감초 등 다양한 농산물을 분말 건조로 가공해 납품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판로 다변화로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고창 웰런비엔에프는 13억 원(보조금 7억 8천만 원, 자부담 5억 2천만 원)을 투자해 가공 설비(SD분말)·저장유통설비·반가공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품목의 다양화로 매출증대(2019년 46.7억원 → 2021년 216억원)와 신규 일자리 창출(2019년 14명 → 2021년 40명)이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는 이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많은 식품기업이 입주함에 따른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확대해 대규모 식품업체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우석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삼라농정의 제값 받는 농업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구호 외치는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전북도청 앞에서 '9.24 글로벌 기후 파업 기후 정의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북의 맛' 널리 알린다

내달 1~20일 '전북은라인음식문화대전' 개최 요리경연대회 · 쿠킹클래스 · 향토음식 전시 등 진행

맛의 고장 전북을 알릴 수 있는 한판 대전이 오는 10월 개최된다. 전북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요리경연대회, 쿠킹클래스, 향토음식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15회 전북은라인음식문화대전'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요리경연대회'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향토 음식과 창작

음식(일반, 학생, 디저트) 부문으로 나눠 55개 팀이 전북도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경연을 펼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는 상장과 함께 향토 음식 부문 수상업소에는 '수상인증 명패'가 수여될 예정이다. '쿠킹클래스'는 도내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주제로, 유수의 셰프와

명인의 요리강좌를 12월 말까지 SNS와 홈페이지에 게시, 지역 식재료를 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토음식 전시관'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14개 시·군 대표 향토음식 및 식생활 교육 코너와 제14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요리경연 향토음식부문 시상장 전시코너 등을 마련해 전북음식을 홍보한다. 천선미 도 건강증진과장은 "우리의 우수한 향토음식이 세간에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음식으로 재탄생해 '전북의 맛'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기능우수인력 취업 지원대상 확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국가기술자격 보유자까지 확대 운영

전북도와 전북도일자리센터가 추진하는 기능우수인력 취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서 국가기술자격 보유자까지 확대 운영된다.

그간 '기능우수인력 취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만 한정해 지원했지만, 앞으로 국가기술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보유자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기능 우수인력에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100만원씩, 2년간 최대 2400만원의 인센티브는 물론 교육지원, 전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전북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www.1577-0365.or.kr)를 통해 모집 진행중에 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일자리센터 대표번호(1577-036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기능우수인력의 도내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기능우수인력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취업 만족도도 높이고, 기업 기술경쟁력도 강화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농어촌마을까지 초고속인터넷망 확대 구축

전북도가 '2021년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을 통해 도내 120개 농어촌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도서·벽지마을에 초고속인터넷 구축비 일

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정부 20%, 지자체 20%, 통신사 60%의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올해 29억 3,100만 원을 투입해 120개 마을에서 100Mbps급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 설비를 구축했다.

초고속인터넷은 100Mbps 이상의 인터넷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광대역 통신망으로서, 영상회의와 화상교육, IPTV, 원격진료 등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다양한 첨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IT 기반시설이다. 사업으로 농어촌마을에서도 도시지역과 동일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보화 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가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메기 소비촉진 행사 추진

전북도가 침체된 내수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메기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한다.

(사)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 김제시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김제시에 마련된 특관장(김제시 전초양갈 14)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전국 메기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메기 주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도는 이번 촉진 행사에서 메기 음식 문화의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통상 메기는 대부분 매운탕 원료로 사용됐으나 코로나19로 소비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사)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가 메기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을 시도해 메기 볶음, 구이, 찜 등 새로운 메기 가공식품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메기구이, 볶음, 찜

등은 반건조 공법을 통해 메기의 비린내를 없애고, 쫄깃한 식감을 향상시켰으며, 간편 조리식 개발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제시 전초양갈 14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메기 매운탕, 볶음, 구이, 찜 요리를 각각 정상 판매가에서 50~57% 할인된 1만5,000원, 구이&볶음(1세트) 밀키트를 39% 할인된 2만 원에 판매할 예정으로, 기존 메기탕에 더해 새롭게 개발한 볶음, 구이, 찜을 저렴한 가격에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재희 도 수산정책과장은 "코로나 19 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개발한 메기 가공식품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대파 · 가을무 · 가을배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접수

전북도가 도내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재배 농가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뮬러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2021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품목 중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삼라농정위원회에서 지정한 품목 중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 신청 품목은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3개 품목으로, 대파는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대상이며,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고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